

9/27/20

설교 제목: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6 장 1-33 절

- (창 26: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 (창 26: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 (창 26:3)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 (창 26: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 (창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절관주** 창 22:16
- (창 26:6)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 (창 26: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로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 (창 26:8)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 (창 26: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로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으로라
- (창 26: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 (창 26: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 (창 26: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 (창 26: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 (창 26: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 (창 26: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 (창 26: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 (창 26: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 (창 26: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 (창 26: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 (창 26: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 (창 26: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 (창 26: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 (창 26: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 (창 26: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과 아비멜렉의 맹세

- (창 26: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 (창 26: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창 26: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 26: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 26: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창 26:3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창 26:32)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창 26:33)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복 받고 산 한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택하고 복 주신 이삭의 생을 통해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 영위할 인생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을 보면서 그의 생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손에게 흐른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삭의 삶을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둘은 모두 인생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창 26: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물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나자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 때와 달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창 26: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 26: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창 26: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당신의 말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역경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경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셋째로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 26:6)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창 26: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 이삭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도 어쩔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20 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아 고민하면서도 아브라함과는 달리 탄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인 이삭이라할지라도 인간이기에 그의 내면에는 죄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당신의 강권으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창 26:8)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창 26: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창 26: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창 26: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거짓된 행동을 용납하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신 것은 당신이 택하여 언약을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복 주십니다.

(창 26: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창 26: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백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섯째로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창 26: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창 26: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흠으로 메웠더라

(창 26: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모든 일에 있어 자신들보다 형통한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곤경에 빠져 있었을 때도 또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 받아 주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자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잘못되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과 친구가 자신보다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가 자신에 비해 더 잘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일곱째로 그럼에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랬듯 그들과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창 26: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창 26: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 26: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창 26: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창 26: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종들이 우물들을 파는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지라도 이삭은 저들과 다투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종들이 판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팠습니다.
 사막에서 식구들과 짐승들의 물을 충당할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일 뿐더러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이삭은 인내하며 악을 선으로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삭을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 26: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창 26: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 26: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덟째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창 26: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창 26: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창 26: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 26: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여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땅에서의 형통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물론 세상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하는 하늘의 복입니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많은 세상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죄를 도말시키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알고 세상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 받은 하늘의 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내려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